

WHY CHRISTIANS CARE ABOUT ANNEXATION 기독교인들이 왜 합병안에 대해 관심을 쓰는가



By: David Parsons, ICEJ VP & Senior Spokesman

Posted on: 3 Jul 2020

기고: 국제기독교예루살렘대사관 수석대변인 다윗 파슨스 부총재

기고일 2010년 7월 3일



I have engaged with a number of reporters lately, both on and off the record, concerning the Trump peace plan. And one odd question keeps coming up: Why should Christians care about whether or not Israel annexes more territory in the West Bank?

나는 트럼프 평화 계획과 관련하여 최근 여러 차례 기자들과 함께 공식 비공식기록과 관계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풀리지 않는 질문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안에 더 많은 영토를 추가해야 하느냐 아니냐라는 사안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I say “odd” because journalists are not asking the same question of everyone else. The United Nations, the European Union, Russia, China, leftists, the

Arabs, the Muslim world, even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 they all are sticking their noses in Israel’s business. Yet many the press treat their concerns about annexation as legitimate, while questioning whether evangelical Christians really have a genuine interest or stake in this matter.

언론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중간한 입장”라고 말합니다. 유엔, 유럽 연합, 러시아, 중국, 좌파, 아랍인, 무슬림 세계, 심지어 블랙 라이브스(Black Lives Matter) 운동까지도 이스라엘 사업에 입김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은 합병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합법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의심하며 보고 있습니다.

When some media outlets do give our concerns a serious look, we get slanderous pieces like The Washington Post column this week entitled “The mainstreaming of Christian Zionism could warp foreign policy,” by Cambridge grad student Jeffrey Rosario. In it, he trots out the tired old bogeyman of “Dispensationalism” and accuses American Evangelicals of thirsting for Armageddon and “weaponizing biblical prophecy for political ends.”

일부 언론 매체가 우리의 우려를 진지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번 주 워싱턴 포스트 칼럼과 같이 캠브리지 대학원생 제프리 로사리오 (Jeffrey Rosario)의 “기독교 시온주의의 주류화는 외교 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의 피곤한 노인을 쫓아 내고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아마겟돈에 갈급해 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성서 예언을 무기화”한다고 비난합니다.

So for the record, here are some very valid, sincere reasons why Christians should and do care about Israel and its current debate over whether to annex parts of Judea/Samaria in the context of the Trump plan.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과 트럼프 계획의 맥락에서 유대/ 사마리아의 일부를 합병할지 여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현재 토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Standing for Fairness

Because so many Christians were hostile to the Jewish people down through history, we view it as our moral duty for Christians today to stand with Israel

against those who are hostile to the modern Jewish state and people. There are simply too many nations and peoples who treat Israel unfairly and even loathe its existence without just reason or cause. So we are determined to stand against the rising tide of antisemitism, the rampant anti-Israel media bias, the stone-hearted threats of sanctions and violence, and the outright bullying of Israel in international forums.

공정성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통해 유대 민족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유대 국가와 국민에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항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정당한 이유나 사유 없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싫어하는 나라와 민족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유대주의, 횡행하고 있는 반 이스라엘 매체의 편견, 제재 및 폭력의 위협, 국제 포럼에서 이스라엘의 명백한 괴롭힘에 대항하기로 결심합니다.

We are simply standing for fair treatment of the Jewish nation and people, in hopes it will create a more level playing field for Israel. The UN Security Council's adoption of resolution 2334 in December 2016 is a prime example of the lopsided and prejudicial decisions routinely made against Israel. By declaring that the entire West Bank and eastern Jerusalem ar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an roughshod over four millennia of Jewish claim and connection to the Land of Israel.

우리는 단순히 유대 민족과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다 수준 높은 운동경기장을 만들길 희망합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2016년 12월 결의 2334 채택은 이스라엘에 대한 일상적인 불균형과 편견 결정의 주요 예입니다. 서안 전체와 동부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영역"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국제 사회는 4천년에 걸친 유대인의 주장과 이스라엘 땅과의 연결을 편자를 댄 듯 함부로 진행해 왔습니다.

So when Israel is debating whether to assert its rightful historic claim and title to the biblical heartland of ancient Israel, Christians are interested and we have every right to be.

따라서 이스라엘이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적 중심지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주장과 호칭을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Standing for Right

Israel is a democratic state whose legitimate historic right and claim to the Jewish homeland was duly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 so long ago. Thus, “annexation” is not really the proper word for what Israel is considering, as it normally connotes the hostile taking of another’s property. Rather, Israel would simply be asserting sovereignty on lands it currently possesses and over which it already has a valid historic claim. Yet the world blithely treats it as an attempt to steal someone else’s lands.

권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 만해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제 사회에서 정당한 역사적 권리와 유대인 고국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합병”이라는 말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적대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유효한 역사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다른 사람의 땅을 훔치려는 시도로 모호하게 취급합니다.

Admittedly, there is a rival Palestinian claim to these same areas, but of such recent origin that it pales in comparison to the long-standing Jewish title over Eretz Israel. The people of Israel must decide whether to compromise on their superior land claim for the sake of peace. And as Christians, we respect Israeli democracy and the right of its people to make this decision free of outside interference or threats. Thus, with great empathy and care we will be watching the annexation debate and will stand with Israel as it wrestles with this very complex and consequential decision.

틀림없이 이 같은 지역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대항적 주장이 있지만, 최근에는 약속의 땅, 에레츠 이스라엘에 대한 오랜 유대인의 소유권과 비교할 때 무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를 위해 자신의 우월한 땅 소유권을 타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이 결정을 외부의 간섭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공감과 배려로 우리는 합병 논쟁을 보고 이스라엘과 함께 이 매우 복잡하고 결과적인 결정들에 씨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Standing for Truth

To build their rival nationalist claim to the historic Land of Israel, the Palestinians have found it necessary to deny any Jewish connection to the land, and particularly to Jerusalem. In doing so, they have decreed our Bible – both Old and New Testaments – to be full of falsehoods concerning the ancient Jewish presence in this land. This would mean King David did not rule over a large Israelite kingdom from his palace in Jerusalem, as recorded in the Hebrew Bible. And that Jesus did not enter and teach in the courts of the Second Temple, as the Gospels all say. That should get the attention of Christians, and rightly so! The Palestinians also have routinely damaged and destroyed important biblical sites which bear the archaeological proof that ancient Israel once inhabited the land. So Christians are standing for truth, and the preservation of history, when we partake in the debate over the fate of the disputed territories.

진실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땅에 대한 경쟁자의 민족주의 주장을 없애기 위해 그 땅, 특히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의 연결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가 이 땅에 고대 유대인의 존재에 관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전에서 큰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이 모두 말하고 있는대도 제 2 성전 궁정에 들어가서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한 고대 이스라엘이 한 때 그 땅에 살았다는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서 유적지를 정기적으로 손상시키고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지역의 운명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역사 보존을 위해서 있습니다.

Standing for Justice

Christians believe God made a covenant promise to Abraham to deliver the entire Land of Israel as an “everlasting possession” to his descendants. How and when God ultimately fulfills that promise is up to Him. But we do believe the modern-day return of the Jews to the Land of Israel, including the mountains of Judea and Samaria, are part of God keeping His covenant promises to the Jewish people concerning their land inheritance. Our Bible also says that God scattered them from the land for corrective and redemptive purposes, while at the same time vowing that He would always regather them to the Land of Israel one day. Thus, we consider it a matter of historic justice that the Jews have returned to their homeland in modern times. And since Christians also serve the same God as the Jewish people, our own faith is strengthened when we see Him being faithful to His promises to Israel concerning the Land.

정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한 재산”으로 이스라엘 땅 전체를 넘겨 주겠다고 성약을 맺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제 어떻게 성취 하시는지는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 산을 포함하여 현대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땅 상속에 관해 유대인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성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교정과 구속의 목적으로 그들을 땅에서 흩어 놓으셨으며, 동시에 언젠가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거두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현대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역사적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민족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므로, 그분이 땅에 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의 믿음은 강화됩니다.

So to answer the question, Christians have plenty of reasons for why we care

so deeply about the annexation debate and how the Jewish people hope to maintain their enduring connection to their biblical homeland.

따라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병 논쟁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유대 민족이 성경적 고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한국 국제기독교예루살렘대사관

Korea International Christian Embassy Jerusalem

Rm703, Acetechnotower, 15, Seonyu-ro 33-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07271

F: +82-2-2636-4753

M: +82-10-2079-3073

E: tcj.jesus@gmail.com

H: www.tcj.kr

Facebook: ICEJ KOREA YouTube: ICEJ KOREA

